

# 國語 補助動詞의 統辭的 特性

康 琪 鎮

(弘益工專大 敎授)

## —目 次—

- |                   |            |
|-------------------|------------|
| I. 序 論            | II. 問題의 檢討 |
| III. 補助動詞의 統辭的 特性 | IV. 結 論    |

## I. 序 論

국어의 여러 文法的 현상 가운데서, 이른바 補助動詞(auxiliary verb)의 문제는 많은 論議와 是非를 가져온 문제 중의 하나이다.<sup>1)</sup> 補助動詞에 대한 그 간의 여러 논의와 논의의 거듭을 통해서, 국어의 보조동사가 英語의 助動詞<sup>2)</sup>나 日本語의 助用詞와는 다른 文法現象임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方法論的 硬直性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어의 보조동사의 문제는 밝혀진 것보다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형편이다.

보조동사의 문제와 현상은 또 合成動詞(compound verb)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파악되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문제의 外廓에만 머문 느낌이다.<sup>3)</sup> 일부 變形生成理論을 따르는 理論家들에 의해 행해진 이 試圖는 보조동사와 合成動사의 문법적 현상을 한 가지의 이론적 틀에 의해 설명하려는 의욕은 좋았지만, 이 두 현상의 공통적 資質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보조동사와 合成動사가 제각기 가지고 있는 뚜렷한 個體現象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sup>4)</sup>

(1) a. 나는 그것을 먹어보았다.

b. 나는 학교에 뛰어갔다.

(1)a의 ‘보다’와 (1)b의 ‘가다’는 최현배(1955)에서 각각 ‘해 보기 도움움직씨(시행

1) 補助動詞에 대한 포괄적인 共同研究에 대해서는, 서경수(1978), 언어 3-2, 한국언어학회의 조동사에 관한 논의란 참조할 것.

2) 英語의 助動詞에 대해서는 Ross, J.(1975), "Auxiliaries as Main Verb", *Current Papers in Linguistic* 光文社(植鳥坂) 參照

3) 合成動詞은 複合動詞라고도 하는데 모두 Compound Verb의 번역이다.

4) 양인석(1972), *Korean Syntax*, 百舌出版社.

양인석(1976), "Progressive and perfective Aspects in Korca", 언어 2-1.

보조동사)’ ‘나아감 도움움직씨(진행보조동사)’로 다루어진 것이다.<sup>5)</sup>

또 양인석(1972)등 일부 변형생성이론가들은 이것들을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했다.<sup>6)</sup> 그러나 (1)의 a·b ‘보다’·‘가다’에 대한 최현배(1955), 양인석(1972) 등의 논의는 어느 한 측면에서의 시작만을 강조했을 뿐, 이들이 基底構造에서 顯著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異質性을 제 때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자세히 논의되지만 간단한 統辭의 變形은 (1)a와 (1)b를 같은 문법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不自然스러운가를 示唆해 주고 있다.

(1)a·(1)b에 각각 pseudo-cleft를 해보자.”

(2) a. 내가 해본 것은 그것을 먹은 것이다.

\*b. 내가 해간 것은 학교에 쫓겨난 것이다.

(2)a는 (1)a에 pseudo-cleft한 것이고, (2)b는 (1)b에 pseudo-cleft를 한 것인데, (2)a는 文法的인 문장이 된 반면, (2)b는 非文法的인 문장이 되었다.

결국 (1)a와 (2)b의 통사적 특성이 서로 다를수록 pseudo-cleft는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을 한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색한 것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결국 (1)a와 (1)b는 그 統辭構造가 다른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자연히 그 意味構造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本論文에서는 (1)a의 ‘먹어보다’를 補助動詞構文으로 (1)b의 ‘따라가다’를 合成動詞構文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1)a의 ‘보다’는 보조동사이나, (1)b의 ‘가다’는 보조동사 현상과는 다른 文法範疇, 곧 합성동사의 後行成分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결국 국어 서술부에 나타나는  $V_1+V_2$ (動詞<sub>1</sub>+動詞<sub>2</sub>)의 현상을 보조동사구문과 합성동사구문으로 나누어 보고, 이 현상들의 각각의 특성을 포괄적이고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V_1+V_2$ 의 현상을 이전의 논의와는 달리, 나누어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문법적 간결성과는 相衡되는 일면이 있기는 하지만, 문법적 간결성이 언어현실을 歪曲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도한 것이다.

결국  $V_1+V_2$ 의 현상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母語話者(native speaker)의 言語直觀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되며, 아울러 言語能力(linguistic competence)에 근거하는 心理的 實在(psychological Reality)라고 생각한다.

本論文은 共時的이며 따라서 通時的인 論議는 參考하지 않는다.

5) 최현배(1955), 우리말론 pp. 400~407 參照.

6) 양인석(1972), 前掲書, pp. 117~127.

7) Pseudo-Cleft에 대해서는 Stokwell, R.(1977), *Foundation of Syntactic Theory*, pp. 157~158 參照.

## II. 問題의 檢討

보조동사의 문법적 현상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 논의의 배경이 되는 이론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최현배(1955)등으로 대표되는 傳統文法的 接近法이다. 이것은 보조동사를 그 쓰이는 의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그 용법을 설명하는 식의 논의이다.<sup>8)</sup> 崔光玉(1908)의 ‘大韓文典’이나<sup>9)</sup>, 朴勝彬(1935)의 논의도 여기에 속하나,<sup>10)</sup> 최현배(1955)의 分析的 作業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보조동사라는 문법범주의 대표적 설명으로는 보통 최현배(1955)의 논의를 들고 있지만, 최현배(1955)의 논의는 그 방법론적 細心性과 分析의 多樣性에도 불구하고, 과연  $V_1+V_2$ 에서 보조동사  $V_2$ 가 주동사  $V_1$ 의 의미를 보조만 하는 機能을 지녔느냐 하는 회의가 제기된다.

예컨대  $V_1+V_2$ 에서  $V_2$ 가  $V_1$ 의 意味를 도와서 그 기능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보조동사라면, 역으로  $V_1$ 이  $V_2$ 를 意味的으로 보충하여 주는 현상도 보이는데,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해야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먹어보다’ ‘도와주다’ 등에서는 물론 뒤의  $V_2$ 가 앞의  $V_1$ 을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뛰어가다’·‘기어가다’ 등의 예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뛰어가다’·‘기어가다’의 경우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곧 ‘뛰어서 가느냐’·‘기어서 가느냐’하는 樣態(manner)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는 오히려 앞의  $V_1$ 이 뒤의  $V_2$ 를 意味的으로 돕고 있는 결과라 되어, ‘가다’를 ‘나아감도움움직씨’로 설명한 최현배(1955)의 논의는 설득력이 얼마간 상실되고 있다.

곧 의미적으로  $V_2$ 가  $V_1$ 을 돕고 있다는 보조동사에 대한 설명이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최현배(1955)의 논의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

또 실제로 최현배(1955)에서는 보조동사를 그 붙어 쓰이는 앞 동사, 곧  $V_1$ 의 종류에 따라 (1) 으뜸 움직씨(주동사)의 뒤에 쓰이는 것, (2) 으뜸 움직씨와 으뜸 그림씨[주형용사]의 뒤에 두루 쓰이는 것, 그리고 (3) 으뜸 움직씨·으뜸 그림씨·잔음씨[지정사]의 뒤에 두루 쓰이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sup>11)</sup>  $V_1+V_2$ 의 문법현상에서  $V_2$ 에 최현배(1955)에서 設定한 동사들이 位置하기만 하면, 곧바로 그것을 보조동사로 보는

8) 최현배(1955), 前掲書, pp. 390~408.

9) 崔光玉(1908), 大韓文典, pp. 33~34.

10) 朴勝彬(1935), 朝鮮語學, pp. 290~310.

11) 최현배(1955), 前掲書, pp. 391~394.

데에는 많은 難點이 있다.

앞의 예 (1)b에서 처럼  $V_2$ 를 도저히 보조동사로 볼 수 없는 문법적 사실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는  $V_2$ 를 모두 보조동사로 보는 것은, 첫째는 최현배(1955)의 보조동사에 관한 설명에 무리가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따라서  $V_1+V_2$ 의 構成에서  $V_2$ 의 構成成分을 더 下位分類해야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V_1+V_2$ 의 구성이 근본적으로는 그 基底構造(deep structure)에서 두 가지로 하위분류됨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거니와, 최현배(1955)의 보조동사에 관한 해석은 확실히 이론적 체계를 고집하다가, 국어의 귀중한 언어현상을 제때 포착치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현배(1955)의 보조동사에 관한 논의와 해석은, 그것이 보조동사란 국어 나름의 독특한 특성에 최초로 分析的인 연찬을 가했다는 점에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 세세한 것은 몇 장에서 다루겠다. 보조동사에 관한 논의로서 최현배(1955) 다음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업적은, 양인석(1972)·박병수(1974) 등으로 대표되는 變形生成文法的 接近法이다.<sup>12)</sup>

양인석(1972)·박병수(1974)의 보조동사에 관한 논의의 理論的 基盤은 原初的으로 Rosenbaum(1974) Fillmore(1963)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3) 존이 김치를 먹어 보았다.

(3)의 예문은 양인석(1972)에서 빌려온 것이다. 양인석(1972)·박병수(1974)의 보조동사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는  $V_1+V_2$ 의 構成에서  $V_1$ 을 補文(complementation)의 內包動詞로 보고,  $V_2$ 를 이 보문을 이끄는 補文動詞로 본 점이다. 그리하여 보문 내포동사  $V_1$ 과 보문동사  $V_2$ 가 變形規則(transformational rule)에 의하여 合成動詞(compound verb)를 형성한다고 보았다.<sup>13)</sup>

예문 (3)을 빌려 말한다면 ‘존이 김치를 먹어’는 보문이고, ‘보았다’는 이 보문을 이끄는 보문동사라는 것이다.

(3)의 ‘존이 김치를 먹어’가 보문이라면, 補文者(complementizer)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박병수(1974)는 이 경우 보문자는 ‘아’라고 했다.<sup>14)</sup>

다만 양인석은 (3)에서 ‘존이 김치를 먹어’를 名詞句補文(Noun phrase complementation)으로 본 데 비해서, 박병수(1974)는 이것을 動詞句補文(Verb phrase comple-

12) 박병수(1974), *Complement Structure in Korean*, 百合出版社, 參照.

양인석(1972), *Korean Syntax*, 百合出版社,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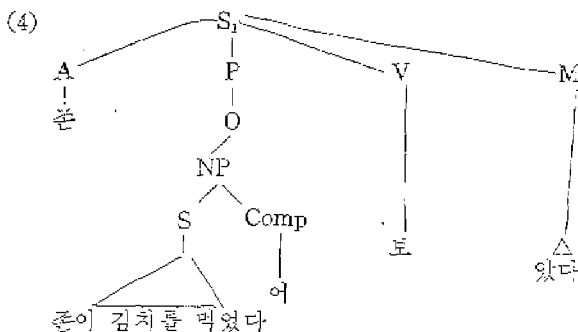
13) 양인석(1972), 前掲書, pp. 116~224.

박병수(1974), 前掲書, pp. 25~57.

mentation)으로 본 것이 차이질 뿐이다.

‘존이 김치를 먹어’를 명사구보문으로 보든, 아니면 박병수(1974)처럼 동사구 보문으로 보든 간에,  $V_1$ 에 해당하는 ‘먹어’를 보문 내포동사로  $V_2$ 에 해당하는 동사 ‘보았다’를 보문을 이끄는 보문동사로 본 것은, 그 간의 전통문법적 견해와는 그 방법론적 인식을 달리한 것일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하여 이들 논의에서는 예문 (3)의 기지구조를 다음 (4)와 같이 브이코 있으며, 이것이 변형규칙을 거쳐 문장동사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4)</sup>



양인석(1972)·박병수(1974) 등의 논의가 (3)의 예문에서 ‘먹어’를 보문내포동사로 ‘보았다’를 보문동사로 보는 이유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즉 ‘존이 김치를 먹어’가 보문이 아니라면 다음 (5)의 예문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5) 존이 김치를 먹어를 보았다.

(5)는 예문 (3)의 ‘먹어보았다’에서 ‘먹어’ 다음에 보조사 ‘를’이 挿入된 현상이다. 만약 이것이 보문이 아니라면 補助詞 ‘를’의 개입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양인석(1972)·박병수(1974)의 논의의 증설이다.

사실로 국어에서 보문구조로 취급되고 있는 현상에는 그 보문구조 뒤에 보조사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인석(1972)·박병수(1974)의 논의는 說得力이 있다.

다음 예를 보자.

(6) 철수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7) a. 철수가 학교에 가기를 싫어한다.

b. 철수가 학교에 가기는 싫어한다.

c. 철수가 학교에 가기도 싫어한다.

d. 철수가 학교에 가지만 싫어한다.

14) 박병수(1974), 前同書, pp. 32~43 參照.

15) 양인석(1972), 前同書, pp. 117~127.

(6)의 ‘철수가 학교에 가기’는 ‘기’보문자(complementizer)에 의한 보문구조이다. (7)은 (6)의 보문구조에 보조사가 介入된 것을 보이고 있다. 곧 (7)a·(7)b·(7)c·(7)d에는 각각 ‘를’, ‘는’, ‘도’, ‘만’ 등의 보조사가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보문구조 뒤에 보조사의 개입이 보문의 당연한 문법현상의 하나라면, (5)에도 ‘김치를 먹어’ 다음에 보조사 ‘를’이 개입되어 있으니, ‘김치를 먹어’를 보문으로 파악한 양인석(1972), 박병수(1974)의 논의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양인석(1972), 박병수(1974)의 이러한 논의는 몇 가지의 疑問點이 提起된다. 그 중 하나는 보문 뒤의 보조사 개입이 과연 기저구조의 현상이냐 하는 점이다.

곧 예문 (5)의 ‘존이 김치를 먹어를’에서 ‘를’은 어떤면 국어의 여러 문법 현상에도 나타나는 表面構造상의 현상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를’이 없는 예문(3)과 ‘를’이 개입된 예문(5) 사이에는 약간의 文體論的 기분을 제한하면 어떠한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 예문(3)과 (5)의 의미 차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3)과 (5)가 同義의 문장이라는 점이 되는데, 그렇다면 보조사 ‘를’은 기저구조에 設定된 것이 아니라, 변형규칙에 의해서 표면구조에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를’이 기저구조에서 설정된 것이라면, (3)과 (5)의 기저구조는 달라야 하고, 따라 기저구조(deep structure)가 서로 다른 (3)과 (5)는 그 의미가 달라야 하는데도, (3)과 (5)는 의미차이를 보이지 않는 동의의 문장이니까 ‘를’은 기저구조에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변형에 의한 표면구조상의 현상이라야 한다.

양인석(1972)·박병수(1974)의 논의가 단지 표면적인 현상 ‘를’에 지나치게 집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결국 (3)의 ‘존이 김치를 먹어’에 ‘를’이 개입하고 안 하고는 ‘존이 김치를 먹어’가 보문이라는 데에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양인석(1972)·박병수(1974)의 논의는 그 설득력의 원초적인 기반을 송두리째 잃게 되는 셈이다.

또 양인석(1972)·박병수(1974)의 논의에서 보문의 증거로 강조되어 채택되었던 보조사의 개입현상은 비단 보문구조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1) a. 나는 그것을 먹어보았다.

b. 나는 학교에 뛰어갔다.

(1)a는 본 논문에서 보조동사구문으로 보려는 예문이고, (1)b는 합성동사구문으로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1)a·(1)b에도 보조사가 개입될 수 있다.

(8) a. 나는 그것을 먹어를 보았다.

b. 나는 그것을 먹어는 보았다.

c. 나는 그것을 먹어만 보았다.

(9) a. 나는 학교에 뛰어를 갔다.

b. 나는 학교에 뛰어는 갔다.

c. 나는 학교에 뛰어도 갔다.

(8)과 (9)에는 각각 보조사가 개입되어 있다. 또 다음 (10)의 예문을 보자.

(10) a. 나는 서울에 가보았다.

b. 나는 서울에를 가보았다.

(10)b에는 ‘나는 서울에’에 보조사 ‘를’이 개입되어 있다. 양인석(1972)·박병수(1974)의 논의대로라면, ‘나는 서울에’도 보문구조라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나는 서울에’는 보문과는 전혀 거리가 먼 문법현상이니, 양인석(1972)·박병수(1974)의 논의는 난질을 지니게 된다.

결국 양인석(1972)·박병수(1974)의 논의는 보조사의 개입 여부로  $V_1+V_2$ 의 구문을 보문구조로 파악하려 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보조사의 개입 여부는 보문구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위에서 보았다.

특히 박병수(1974)는 ‘ $V_1$ 아’·‘ $V_1$ 고’·‘ $V_1$ 게’ 등에서 ‘아’·‘고’·‘게’ 등이 보문자라고 했다.<sup>16)</sup>

(11) a. 사과를 먹어 보다.

b. 철수가 죽게 되다.

c. 사과를 먹고 싶다.

곧 (11)a, b, c에서 ‘어’·‘게’·‘고’ 등이 보문 ‘사과를 먹’·‘철수가 죽’·‘사과를 먹’ 등을 이끄는 보문자라고 이해한 것이 박병수(1974)의 논의의 특징이다.

그러나 ‘아’·‘게’·‘고’ 등을 보문자라고 한다면, 다음 (12)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12) a. 집에서 나와 학교에 갔다.

b. 따뜻하게 음식을 데워라.

c. 나는 오고 너는 가거라.

(12)a·b·c에서의 ‘아’·‘게’·‘고’ 등을 보문자라고는 할 수 없으니, (12)에 맞는 ‘아’·‘게’·‘고’의 用法을 따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한 形態에 대한 여러 用法의 설정이 萬能은 아니다. 다양한 표면현상의 기저 구조를 분석하여, 그것의 공통적인 자질과 용법을 포착하는 것은, 어쩌면 言語記述에 있어서 기본이다.

16) 박병수(1974), 前掲書 pp. 25~57.

‘아’·‘게’·‘고’ 등 동일한 형태가 (11)에서는 보문자로 규정되고, (12)에서는 또 다르게 예컨대 接續語尾로 설정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용법이 달라지는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문법을 너무 ad hoc 하게 처리하는 것이 될 것이다.

Bolinger(1977)같은 試圖, 곧 同一한 형태에 대해서는 되도록 동일한 문법범주를 설정하는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sup>17)</sup> 어쨌거나 보조동사의 기저구조를 보문구조로 파악하고, 이것에 변형규칙을 적용해서 이것에서 합성동사를 유도해 내는 것을 중요 要點로 삼고 있는, 변형생성문법적 접근론은 국어의 언어현실을 영어의 研究動向에 너무 가까이 맞추려고 하다가, 국어의 중요한 문법현상과 언어현실을 놓치게 되지 않았나 하는 회의가 든다.

그러나 양인석(1972)·박병수(1974)의 보조동사에 대한 논의에서, 그 방법론적 다양성은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보조동사에 대한 논의의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의 하나가 손호민(1976)의 意味論的 接近論이다.<sup>18)</sup>

손호민(1976)에서는  $V_1+V_2$ 의 구성에서 이것들이 보조동사 구문이나 합성동사구문 이냐하는 것은 이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손호민(1976)에서는  $V_1+V_2$ 의 구성을 합성동사구문이라고 先驗的으로 파악하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호민(1976)에서 중요한 것은  $V_1+V_2$ 라는 문법현상의 概念規定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結合樣相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손호민(1976)은 결국  $V_1+V_2$ 는 ‘activity→direction→motion→psychological’의 順序로 配列되며,<sup>19)</sup> 따라서  $V_1+V_2$ 의 구성 뿐만 아니라  $V_1+V_2+V_3$ 나  $V_1+V_2+V_3+V_4$ 의 生成(Generative)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13) 그 사과를 먹어 보았다.

(13)의 예문은 손호민(1976)에서 빌려온 것이다. (13)에서 ‘먹다’는 activity의 資質을 가지고 있고, ‘보다’는 psychological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13)이 문법적인 문장이 된 것은, 손호민(1976)에 의하면 ‘activity→direction→motion→psychological’의 결합 순서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순서를 어긴 (14)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고 손호민(1976)은 설명하고 있다.

17)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參照.

18) 손호민(1976), “Semantics of Compound Verbs in Korean”, 韓語 1-1, pp.142~150. 한국언어학회



\* (14) 그 사과를 보아 먹다.

그러나 손호민(1976)의 이 방법론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다음 예문 (15)를 보자.

(15) 기어이 카보아버렸다.

(15)에서 ‘가’는 이른바 activity 자질이고 ‘보다’ ‘머리다’는 다같이 psychological 자질을 가지고 있다. 곧 ‘보다’ ‘머리다’와 같이 같은 psychological 자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보다’ · ‘머리다’의 결합순서를 바꾼 (15)’도 역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15)’ 기어이 가 버려 보았다.

(15)와 (15)’는 두 가지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보아 버렸다’나 ‘머려 보았다’나 다 마찬가지로 psychological 자질의 연속인데, 그렇다면 같은 psychological 자질 사이의 결합순서는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15)와 (15)’는 결코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構造化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첫번째 문제는 물론 두 번째 문제와 긴밀히 對應되는 의문이다. 곧 ‘보아 버렸다’와 ‘머려 보았다’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몰라도, 이들의 의미 차이가 확인한 이상, psychological 자질에 같이 속해 있다해서 자유롭게 결합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psychological 자질에 속한 동사들의 하위분류가 문제가 되는 데, 손호민(1976)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곧 psychological 자질을 가지고 있는 동사 사이의 결합순서가 다시 분류되지 않는 한, 두번째 문제, 곧 (15)와 (15)’의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 경우 우리는 손호민(1976)이 설정한 이른바 동사의 意味領域(semantic scope), 곧 ‘activity→direction→motion→psychological’의 순으로 결합된다는 그의 가설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의 이러한 가설은 타당성있게 받아 들이는 대신에,  $V_1+V_2$ 의 구조를 선형적으로 합성동사라고 판단한 그의 원초적 시발점을 의심하게 된다.

본 논문은 바로 두 번째 의심 위에 선다. 곧 손호민(1976)의 결합순서에 대한 가설은 비교적 타당성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신 그의  $V_1+V_2$ 구조에 대한 시발절예의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는 점이다.

다시 말한다면  $V_1+V_2$ 의 구조를 손호민(1976)은 합성동사로 이해했지만, 이 이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5)와 (15)’에서 나타난 의문을 풀 수 없었으리라고 본 論文은 생각한다.

### Ⅲ. 補助動詞의 統辭的 特性

本章에서는  $V_1+V_2$ 의 구성을 최현배(1955)에서나, 양인석(1972)·박병수(1974) 등에서와 같이 일률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앞 장의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V_1+V_2$ 의 구성을 보조동사구문과 합성동사구문으로 나누어 본다.

그리고 보조동사구문의 여러가지 統辭的 特性을 이해하고, 그것이 합성동사구문과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V_1+V_2$ 의 구성에서 보조동사의 통사적 특성을 밝혀내기에 가장 좋은 변형규칙(Transformational Rule)의 하나가 pseudo-cleft이다.

Stockwell(1977)등에서 분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pseudo-cleft는 일반적으로  $V_1+V_2$ 의 구성에서  $V_2$ 를 ‘하다’동사에 부착시켜 主語部(NP)로 보내고,  $V_1$ 은 敘述部로 보내는 등  $V_1+V_2$ 를 갈라놓는 기능을 갖는다.

물론  $V_1+V_2$ 의 구성이 아닌  $V_1$ 의 구성에는 대동사로 ‘하다’동사만 주어부로 나가게 된다.

(16) a. 철수가 잔을 잤다.

b. 철수가 한 것은 잔을 잔 것이다.

(16)b는 (16)a의 예문에 pseudo-cleft 변형규칙을 적용한 것이다. 가령  $V_1+V_2$ 의 구성에서  $V_2$ 가  $V_1$ 의 의미를 보조하는 보조동사라면  $V_2$ 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V_1$ 보다는 周邊의이다. 곧 이 경우  $V_1$ 은 敘述의 本質部이고,  $V_2$ 는 敘述의 周邊部라고 말할 수도 있다.

pseudo-cleft는  $V_1+V_2$ 의 구성에서 서술의 주변부와 서술의 본질부를 서로 분리시키는 통사적 변형규칙이므로,  $V_1+V_2$ 의 구성이 어느 한 쪽이 어느 한 쪽을 의미적으로 보조하는 보조동사구문이라면, pseudo-cleft 변형규칙을 적용해도 문법적인 문장으로 남겠지만, 그 의미 구성이 대등한 합성동사의 경우에는 pseudo-cleft 변형규칙을 적용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 버리게 된다.

(17) a. 그는 서울에 가버렸다.

b. 그가 헤버린 것은 서울에 간 것이었다.

(17)a의 ‘가버렸다’구문이 보조동사구문인지, 아니면 합성동사구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따라서 우선 pseudo-cleft 적용이 필요하다. (17)a에 pseudo-cleft를 적용한 (17)b는 문법적인 문장이 되므로, (17)a의 ‘가버렸다’구문은 보조동사구문이고, 따라서 ‘버

리다'는 보조동사임이 확인된다.

(17)a의 문장은 따라서 합성동사구문이 아니며, 단일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합성동사의 기저구조(deep structure)로 이해되고 있는 동사구로 분해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 버린다.

\*(17) c. 그는 서울에 가 서울에 버렸다.

결국 (17)a의 구문은 보조동사구문이 되는 셈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8) a. 철수는 학교에 뛰어갔다.

\*b. 철수가 해간 것은 학교에 뛴 것이다.

(18)a에 pseudo-cleft 변형규칙을 적용한 (18)b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 버렸다. 결국 (18)a의 '뛰어갔다' 구문은 보조동사구문인 셈이다.

이것이 보조동사 구문이라면, (18)a의 구문은 다음과 같이 動詞句構文으로 分解해도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18)c 철수는 학교에 뛰어 학교에 갔다.

(18)c는 (18)a의 기저구조로 이해되고 있는데, (18)c에서 (18)a의 합성동사(compound verb)를 유도하는 데에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

즉 (18)c에서 '학교에'가 반복되어 있으므로, 同一名詞句削除規則(Identical Noun Phrase deletion rule)에 의해 뒤의 '학교에'를 삭제하면, 곧바로 (18)a를 얻을 수 있다.

(18)c에서 '어'는 '어서'로 바꾸어도 큰 의미 변화물 가져 오지 않는데, 이것도 (18)a가 합성동사구문임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18) d. 철수는 학교에 뛰어서 학교에 갔다.

'서'가 나타나있지 않은 (18)c와 '서'가 나타나 있는 (18)d의 의미가 同義라는 점은 '서'가 選擇的(optional) 要素임을 알려주고 있다.

pseudo-cleft 변형규칙은 보조동사구문의 剝別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pseudo-cleft 변형규칙 이외에도 보조동사구문의 판별에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Chomsky(1965)가 말하는 이른바 嚴密下位分類區分規則(strict subcategorization rule)이다.<sup>20)</sup>

Chomsky(1965)에서는 엄밀하위분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고 있다.

19) 손호민(1976), 前掲論文, p. 146.

20) Chomsky, N.(1965), *Aspect of the Theory of Syntax*, p. 94.

(19)

V→CS/--	{	NP
		#
		Adjective
		Predicate-Nominal
		Like Predicate-Nominal
		Propositional-phrase
		That S
		NP S
		etc.

앞 (1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엄밀하위분류구분규칙(stric subcategorization rule)은 文章相互成分間의 共起關係(co-occurrence)를 나타내는 규칙이다.

$V_1+V_2$ 의 구성에서 이것이 보조동사구문이라면,  $V_1, V_2$ 가 다 같이 앞 성분——주어 명사구(Noun phrase) 성분이지만——과 공기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  $V_1$ 만 앞 명사구 공기관계를 형성해도 의미상 그리 큰 變異를 가져 오지는 않기 때문이다.<sup>21)</sup>

이에 비해  $V_1+V_2$ 구성이 합성동사구문이라면, 이 경우에는  $V_1, V_2$ 가 모두 앞 문장성분과 공기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합성동사구문은 기저구조(deep structure)에서는 動詞句 接續文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7) a. 그는 서울에 가버렸다.

(20) a. 그는 서울에 갔다.

\*b. 그는 서울에 버렸다.

(17)a는 앞에서 pseudo-cleft에 의해서 보조동사구문으로 이해된 문장이다. 곧 (17)a의 ‘가버렸다’는 보조동사 구성이기 때문에,  $V_1$  ‘가다’는 엄밀하위분류구분이 가능하나,  $V_2$  ‘터리다’는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하면, (20)b와 같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V_1+V_2$ 가 합성동사구문인 경우는  $V_1, V_2$  모두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한다.

(18) a. 철수는 학교에 뛰어갔다.

(21) a. 철수는 학교에 뛰었다.

b. 철수는 학교에 갔다.

(18)a는 앞에서 pseudo-cleft에 의해서 합성동사로 규정된 예문인데, 이것은 따라서

21) Chomsky, N. (1965), 前掲書, 參照

기지구조(deep structure)에서 동사구(verb phrase) 접속이었으므로, 당연히  $V_1$  ‘뛰다’도  $V_2$  ‘가다’도 다 같이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형성한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보조동사구문이 엄밀하위분류구분을  $V_1, V_2$ 가 다 같이 형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V_1+V_2$ 의 보조동사구문에서  $V_2$ 가  $V_1$ 을 의미적으로 보조한다면,  $V_1$ 만 앞 성분과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형성해도,  $V_2$ 는 그 결과의 영향을 입은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V_2$ 도 앞 성분과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형성한다고 해도, 이미  $V_1$ 에서 형성한 이후이기 때문에,  $V_2$ 의 앞 성분과의 엄밀하위분류구분(strict subcategorization)은 剩餘的(Redundancy)이며, 따라서 하나는 削除(deletion)되는 것이 논리적인 이치이다.

그러나 합성동사구문은 의미적으로  $V_1, V_2$ 의 독립성이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V_1, V_2$  둘 다 모두 앞 성분과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형성해야 하며, 만일 이것을 어길 때는, 그것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 버린다.

앞에서는 名詞句(NP)와의 엄밀하위분류구분 형성을 보았는데, 다른 성분과의 형성 관계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副詞語와의 엄밀하위분류구분을 보자.

(22) a. 끝끝내 이겨 내었다.

b. 끝끝내 이겼다.

\*c. 끝끝내 내었다.

(22)b에서 ‘이겼다’는 부사어 ‘끝끝내’와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형성하고 있으나, (22)c에서는 ‘내었다’가 부사어나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형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결국 (22)a의 구문의 보조동사구문인 셈이다.

다음을 보자.

(23) a. 사업이 잘 되어간다.

b. 사업이 잘 된다.

\*c. 사업이 잘 간다.

(23)a의 ‘되어간다’는 보조동사구문이며, ‘가다’는 따라서 보조동사이다. 왜냐하면 (23)b에서는 ‘되다’가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형성하나, (23)c에서는 ‘가다’가 ‘잘’과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성동사구문은  $V_1, V_2$ 가 모두 다 부사어와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형성한다.

(24) a. 빨리 뛰어간다.

b. 빨리 뛴다.

## c. 빨리 간다.

(24)b, (24)c 는 모두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는 (23)과 (24)에서 매우 중요한 문법적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동사 ‘가다’가 (23)에서는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형성하나, (24)에서는 엄밀하위분류구분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다.

곧 동사 ‘가다’가 (23)에서는 보조동사로, (24)에서는 합성동사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법적 현상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보조동사에 관한 한 형태(form)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곧 어떤 동사가 보조동사(auxiliary verb)이나, 합성동사(compound verb)이나 하는 것은 형태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 기능과 특성에 의해 구분된다는 점이다.

최현배(1955)에서는 예컨대 나아감 도움 움직임씨로는 ‘가다’ ‘오다’가 있고, 심김도움 움직씨로는 ‘주다’ ‘드리다’ ‘바치다’가 있다는 등의 분류를 시도하였지만, 그러한 시도는 이것들이 꼭 보조동사로 쓰인다는 前提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앞의 (23)(24)에서 보듯이 어떤 한 형태가 (23)에서는 보조동사로, (24)에서는 합성동사로 쓰이는 등, 그 넘나들이 자유로운 언어현실 앞에서는 그 넘나들의 조건을 明示해주지 않는 한, 그러한 시도는 그 의미가 크게 損失될 것임은 물론이다.

다른 말로 최현배(1955)에서 보조동사로 설정한 동사들은 앞서의 논의에서 처럼, pseudo-cleft 변형규칙을 적용해도 문법적인 문장이 되어야 하고, 先行成分과 엄밀하위분류구분(strict subcategorization)형성에 制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통사적 조건들에 어긋나는 예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최현배(1955)의 보조동사에 관한 시도에 문제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보조동사라는 문법적 별주자체를 設定할 必要가 없음을 示唆하는 것은 아니다.

보조동사라는 문법별주 설정의 필요성은 이미 최현배(1955)에서도 논의되었고, 본 논문의 앞에서도 주장된 바가 있지만, 문제는 보조동사라는 문법별주는 설정하되, 보조동사를 語彙部(lexicon)에 指定하여 놓는 시도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統辭的 次元에 달기자는 것이 본 논의의 주장이다.

$V_1+V_2$ 의 구성에서 어떤 한 動詞形態가 보조동사가 되기도 하고, 합성동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곧 보조동사와 합성동사 사이의 넘나들이 環繞의 要因에 選擇의으로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보조동사의 話用論(pragmatics)적 처리의 가능성과, 樣相(modality)적 처리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sup>22)</sup>

22) Ross, J.(1975), 前掲論文 參照.

본 논문은 보조동사의 통사론적 접근법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자리이므로, 화용론적, 양상적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확실히 화용론적, 양상적·처리 방법은 보조동사에 관한 한, 어떤 새로운 視角을 열어 줄지도 모르는 방법론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다.

앞의 제 II 장에서도 논의했지만, 보조동사에 관한 논의 중에서 가장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이른바 보조사 介入의 문제이다.

양인석(1972), 박병수(1974)로 대표되는 변형생성문법적 처리가 보여준, 보조사개입을 근거로 한 보조동사의 보문 처리가 확실한 방법론적 新鮮感에도 불구하고, 보조사라는 表面現象에 질착하여 문제를 크게 만들었음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그대로이다.

보조사는 그러나 보조동사구문이나 합성동사구문 모두가 다 그 개입을 허락하고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25) a. 문을 열어 놓았다.  
 b. 문을 열어는 놓았다.  
 c. 문을 열어를 놓았다.  
 d. 문을 열어만 놓았다.  
 e. 문을 열어도 놓았다.

(25)의 예는 보조동사구문에 보조사가 쓰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25)a는 보조동사구문이며, (25)b·(25)c·(25)d·(25)e에는 각각 보조사 ‘는’·‘를’·‘만’·‘도’가 쓰이고 있다.

합성동사 동사구문 역시 보조동사구문과 마찬가지로 보조사의 개입을 허락한다.

다음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 (26) a. 철수는 학교에 뛰어갔다.  
 b. 철수는 학교에 뛰어는 갔다.  
 c. 철수는 학교에 뛰어를 갔다.  
 d. 철수는 학교에 뛰어만 갔다.  
 e. 철수는 학교에 뛰어도 갔다.

(26)의 예는 합성동사구문에 보조사가 쓰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물론 (26)a는 합성동사구문이며, (26)b·(26)c·(26)d·(26)e에는 보조사 ‘는’·‘를’·‘만’·‘도’가 각각 쓰이고 있다.

앞에서 합성동사구문의 기저구조(deep structure)는 동사구접속이라고 했거니와, 동사구접속문에 보조사가 쓰이면, 아래 (26)f와 같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만다.

\* (26) f. 철수는 학교에 뛰어도 학교에 갔다.

이것은 결국 보조사의 쓰임이 기저구조(deep structure)의 현상이 아니라,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상의 현상임이 다시금 立證되는 根據의 하나를 이룬다.

#### IV. 結 論

지금까지의 論議해 온 바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앞으로의 補助動詞에 관한 나틀 대로의 논의의 方向을 設定해 보는 것으로 本 論文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국어의  $V_1+V_2$ 의 文法的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설명의 간결성을 고집하는 것이, 국어의 언어현실을 看過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本 論文은 주장했다. 곧  $V_1+V_2$ 의 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최현배(1955)에서는  $V_2$ 가  $V_1$ 을 意味的으로 도와주는 補助動詞라고 했으나, ‘뛰어가다’ 같은 예에서는 오히려  $V_1$ 이  $V_2$ 를 樣態意味的으로 도와주고 있음이 문제되었고, 양인석(1972)·박병수(1974)에서는  $V_1$ 을 補文內包動詞로,  $V_2$ 를 補文을 이끄는 補文動詞로 파악하고, 이 構造가 變形(Transformation)과정을 거쳐 合成動詞를 형성한다고 보았으나, 이 경우 ‘아’·‘게’·‘코’의 포괄적 설명의 문제, 補助詞 ‘를’이 基底構造의 현상이 아니라, 表面構造上的의 選擇的(optional)현상이라는 점등이 문제가 되었다.

결국 本 論文에서는  $V_1+V_2$ 의 현상을 統辭의 特性에 따라 補助動詞構文과 合成動詞構文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이것은 國語使用者의 言語直觀과 言語能力(linguistic competence)에 근거하는 心理的 實在(psychological reality)에 근거한 것임을 本 論文은 내세웠다.

둘째, 본 논문은 또한 손호민(1976)의 補助動詞에 관한 意味論의 接近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이 검토 과정에서 손호민(1976)이 제시한 意味領域 중에서 이론바 같은 의미 영역끼리의 重複現象에 대해서도 下位的인 結合順序가 매겨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원착된 연구가 필요시 되었다.

셋째, 本 論文은 제 III장에서 補助動詞의 統辭論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았다.

결과로 補助動詞는 pseudo-cleft 變形規則을 적용했을 때 文法的인 文章이 되었으나, 合成動詞構文은 pseudo-cleft 變形規則을 적용하면 非文法的인 文章이 될을 알아 내었다.

補助動詞는 또 先行成分과 嚴密下位分類區分을 형성하지 않으나, 合成動詞는 이것을 형성함을 알았다.



그리고 合成動詞의 基底構造로 動詞句接續을 설정하였다.

넷째, 補助動詞에 대한 논의가 가질 수 있는 방법론적 다양성이 대해서 본 논문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하나의 名詞句(NP), 주로 主語部가 되겠지만, 에 대해 두 개의 動詞句(VP), 주로  $V_1$ ~ $V_2$ 의 文法現象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지만, 가 對應하고 있다는 국어의 특성있는 현상에 대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왕의 논의에서 목격한 것처럼, 최현배(1955)식의 單純語彙意味論의 방법도 있겠고, 손호빈(1976)에서 보는 것과 같은 語彙資質(lexical feature)에 의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 양인석(1972)등으로 대표되는 格文法(case Grammar)에 의한 방법론도 가능하다. 또 本論文에서 시도한 것처럼 統辭的인 接近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면 방법론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들 각 방법론은 자체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방법론의 한계는 곧 문제에 대한 분석의 한계를 가져온다. 결국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세세한 검토와 분석 만이 문제의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補助動詞를 語用論的(pragmatics)인 입장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와, 樣相(modality)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補助動詞의 성격 파악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 분명한다.

필자는 篇을 달리해서, 補助動詞에 대한 語用論(pragmatics), 樣相(modality)적 차이가 가능한 것인지의 與否를 몇몇 이론적 검토를 통해 立證해 보고, 그것의 구조화 체계화 문제를 상세히 다루려 한다.

#### 〈參考文獻〉

- 양인석(1972), *Korean Syntax*, 百舌出版社  
 — (1976), "Progressive and Perfective Aspects in Korea", 언어 2-1.  
 박병수(1974), *Complement Structure in Korean*, 百舌出版社  
 朴勝彬(1935), 朝鮮語學, 朝鮮語學研究會  
 서정수(1978), 조동사(동종연구), 언어 3-2 한국언어학회  
 손호빈(1974), *Semantics of Compound Verb in Korean*,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崔光玉(1908), 大韓文典  
 최현배(1955), 우리말론, 경음사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Ross, J. (1975), "Auxiliaries as Main Verbs" *Current papers in Linguistics* 11, 光文社  
 (復寫版)  
 Stockwell, R.P. (1977), *Foundation of Syntactic Theory*, New-Jersey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